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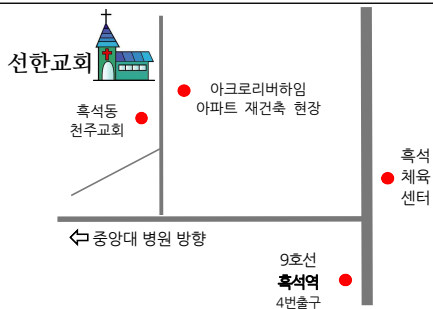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전 1:00 드보라회
	*월삭새벽예배 6:00		오전 1:00 에스더회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금주 (M국)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장 로	조 윤 익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김 대 희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유 신 웅		(2호) 세종 선한교회
	한 배 선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딤후 2:1)

Be Strong In The Grace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기도회 참석 서로 돌아보기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2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1장 (통일찬송가 21장)
교	독	문
		교독문 4번(시편 5편)
찬 양 과 경 배		455장 (통일찬송가 507장)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씀	봉 독
		갈라디아서 6장 : 12~20절
설		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서진화 심지숙 안현미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는 믿네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씬 봉 독						육망에서 자유하십니까 (사무엘하 13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성찬식 오늘 2부 예배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위원 : 김대회장로, 박희태장로, 유신웅장로, 한배선장로
2. 대심방 대심방을 2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게시판 일정을 보시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초등부 겨울캠프 2월 9일(금)~10일(토)
4. 기부금 영수증 신청 기부금 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떡 제 공 이기환 조덕순 성도 가정
6. 중국어 예배 시간 : 주일 오후 4시
장소 : 안디옥실
7. 매일 성경 강론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8. 예배준비 안내 및 정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관악셀**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8년 성경강론 범위						
2/4	2/5	2/6	2/7	2/8	2/9	2/10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4장	사무엘하 15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가정예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

찬송 :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통 168장)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0~20절

말씀 : 요한은 성령에 감동된 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10절). 그는 큰 음성의 주인공을 보기 위해 소리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재해 계심을 봤습니다. 모든 기록된 성경을 계시하신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예배 받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요한은 임재하신 예수님의 옷과 몸(외양)을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머리카락과 털은 흰 양털과 눈 같았고, 눈은 불꽃 같았으며,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이 본 주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들려 있었고, 주님의 발도 주석처럼 빛났습니다.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양 빛 같은 얼굴, 불꽃 같은 눈빛, 별빛 같은 손, 빛난 주석 같은 발. 주님의 옷과 몸은 구석구석 빠짐없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감히 고개 들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웠습니다.

बाट모섬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 지상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라는 특징입니다.

사도 요한은 공생애 내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민낯을 보았던 사람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목격한 유일한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하신 주님도 여러 차례 만나봤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똑부러지게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한조차 이토록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은 전혀 본 적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온통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 모습을 처음 목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갈릴리를 거니시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던 주님이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모습의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밧모섬에 임재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좌정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갈릴리를 거니시던 주님, 십자가에 달려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좌정해 계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하며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갈6:12-20)

서론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합니다.

1. 바울의 삶의 원칙

- (1)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12).
- (2) 주님 외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12).
- (3)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선택한다(20).

본론

2. 교훈

- (1) 자신의 자유를 영적 유익을 위해 사용하자.
- (2)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누릴 자유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 (3) 다른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매이는 사람이 되자.

결론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유신웅 장로	조운익 장로
헌 금 위 원	서진화 심지숙 안현미	손정환 윤국로 윤진기
안 내	안산셀	관악셀

매일 성경 강독		죄의 끝은 무엇인가	날짜 : 2월 5일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가 280장/통일 찬송가 338장)		
통독	사무엘하 11장		
본문 내용	신복들이 전투를 치르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던 다윗은 저녁에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는 밧세바를 불러들여 동침합니다. 밧세바가 잉태하자 다윗은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그녀와 동침하도록 유도하나 그의 충정으로 번번이 실패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암살에 관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다윗의 계략대로 우리아는 전투 중에 죽습니다. 요압의 사자가 다윗에게 우리아의 죽음을 알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호곡합니다. 장례가 마치자 다윗은 그녀를 궁으로 데려옵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기			
1	다윗의 범죄 (1) 겨울이 닥쳐 잠시 중단 되었던 전쟁이 봄이 되어 재개된 상황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 (2)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차에 우연히 목욕하던 밧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범함 (3)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쟁터에 있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하여 집으로 보내는 계책을 세웠으나 우리아의 충정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감 (4) 급기야 다윗은 요압을 통해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어 죽게 하고 곧바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함(5)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평안할 때 방심하다가 범죄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늘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죄는 은폐하기 위해 더 큰 죄를 불러온다.		
핵심 단어	11:2 저녁 때에...그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브라함의 중 엘리에셀이 메소보다미아의 나홀의 성에 다다랐던 저녁 때를 지칭할 때에도 쓰였다. 이때에 그 성의 여인들이 물을 길기 위해 우물로 나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아주 캄캄한 저녁이 아닌,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황혼 무렵을 가리키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다윗은 낮잠을 자다가 이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초저녁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나는 나태한 생활을 했던 것이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가 뜨거울 때 잠깐 동안 잠을 자는 오수 관습에서 훨씬 벗어나 저녁 때까지 한가롭게 잠을 잤던 것이다. 이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로서 너무나 안일하고 해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은사”
찬양과 기도	우리 모임 대신 / 주 예수 보다 더 (94장/통 102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가장 신기한 것은 각자 알아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창조 이후 지금까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구의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태양과 조금이라도 거리가 가까워거나 멀어지면, 정해진 궤도를 조금만 벗어나 무질서하게 운행했다라면, 인간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35만 종의 식물과, 100만 종의 곤충, 그리고 3만 종의 어류를 창조하시고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셨습니다. 소우주라 불리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할 일이 있고, 폐가 할 일이 있으며, 간이 할 일이 있고, 신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 기능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지만 새끼발가락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몸 전체가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무질서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안에 질서를 두셨으며 각각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유지하시며 화평케 하십니다.	
말씀 나누기	고린도전서 14:26~40	
묵상포인트	그리스도인은 방언이나 예언 같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자기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통역하지 않는 방언은 개인에게만 유익이 있기에 공적으로 사용하면 소음이 됩니다. 반면, 분별의 과정을 거친 예언은 듣는 모든 이에게 깨우침을 주며 회심의 계기가 될 수 있기에 바울은 더욱 사모할 은사로 예언을 권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질서와 조화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교회에 혼란만 야기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되 겸손히 질서와 화평을 추구할 때 참사랑이 있는 온전한 은사가 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을 할 때 어떤 원칙을 지키도록 권면하나요? 은사 사용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요?(26~33절)	
적용하기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요? 은사를 사용할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성경의 기준과 일치하나요?	
함께 기도하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열망을 부어 주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좇으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무너지기 위해 쌓는 성	날짜 : 2월 9일
찬양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통일 찬송가 377장)		
통독	사무엘하 10장		
본문 내용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 군사를 마련하고 성문 길에 서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재판합니다. 압살롬의 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에게로 쏠립니다. 그는 사년 만에 다윗에게 고하여 헤브론에 가기를 청하고,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이 들리자 다윗과 백성들은 도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가드 사람 잇대를 설득하여 돌아가게 하지만 잇대는 다윗을 좇습니다. 다윗 일행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향합니다. 사독과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본처에 두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맞으러 나온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가서 투항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알려줄 첩자의 역할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생각해보기			
1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도피 (1)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했지만 서로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이루지 못했기에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반역의 싹이 태동하게 됨 (2) 압살롬은 주도면밀하게 자신을 위해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준비하여 군사력을 확보함 (3) 압살롬은 또한 스스로 재판관으로 자처하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오는 자들에게 다윗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미혹함으로써 다윗에게 향했던 민심을 자신에게 돌아서게 함 (4) 이처럼 압살롬은 백성들과 다윗을 기만하면서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한 끝에 마침내 헤브론에서 반역 정부를 세우고 왕으로 자처하자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여 황급히 도피하게 됨 (5) 다윗의 충신 잇대도 다윗과 함께 떠났고 언약궤를 메고 나온 제사장 사독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하고 충신 후세에게는 압살롬에게 돌아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도록 부탁함 (6)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하며 돕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핵심 단어	15:3 네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 다윗 왕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을 확실하게 부추기는 압살롬의 발언이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그 왕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는) 너를 위해 들을 사람이 없다’ 이다. 공동 번역은 본문을 ‘그런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기나 할 것 같소?’라고 의역하고 있다. 압살롬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런 송사는 수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여 말했던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스스로를 재판하는 왕	날짜 : 2월 6일
찬양	죄 짐에 눌린 사람은 (찬송가 536장/통일 찬송가 326장)		
통독	사무엘하 12장		
본문 내용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어 다윗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부한 자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가난한 자에게 있는 유일한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 가는 이야기를 들던 다윗은 분노합니다. 나단은 그 비유가 바로 다윗을 향한 것이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선언하고 다윗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윗이 자기 범죄를 고백하자 나단은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사망에 대해 예고합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레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오히려 금식을 중단합니다. 다윗은 이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밋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은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압은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거의 승리를 얻을 즈음에 다윗을 참전케 하여 그 영광을 다윗이 누리게 합니다.		
생각해보기			
1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1) 나단이 다윗을 방문하여 비유를 들어 다윗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전달함 (2) 책망을 들은 다윗은 즉시 회개하였으나 간음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됨 (3)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대신으로 장차 언약의 후사가 될 솔로몬을 주심 (4)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대하7:14).		
핵심 단어	12:13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준엄한 말씀을 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음을 드러낸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정하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난 범죄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나단 선지자의 직접적인 책망에 대하여 핑계도 은폐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인정하는 다윗의 겸손함을 보여준다. 아마도 다윗은 죄를 자백함으로써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불안과 공포가 일순간에 사라졌을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때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거의 무감각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욕망에서 자유하십니까	날짜 : 2월 7일
찬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486장/통일 찬송가 474장)		
통독	사무엘하 13장		
본문 내용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에게 애정을 갖고, 그로 인해 병이 듭니다. 암논은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제안으로 다말을 꾀어낼 계락을 꾸밉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말이 병문안 와서 음식을 차려 내오자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다말은 저항했지만 암논은 억지로 동침합니다. 다말과 동침한 암논은 그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종을 시켜 다말을 내쫓습니다. 다말은 재를 머리에 무릅쓰고 채색옷을 찢고 울며 갑니다.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은 이 일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년 후 압살롬은 왕의 모든 아들을 초대하고 다말의 일로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에 다윗과 그 신하들이 다 옷을 찢습니다. 요나답은 오직 암논만 죽었다고 다윗에게 말해 걱정을 덜게 합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땅에서 삼 년의 시간을 지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마음으로 간절합니다.		
생각해보기			
1	다말의 추행과 압살롬의 보복 (1) 다윗의 범죄 결과 다윗 집안에 재난이 일어남 (2) 다윗의 장자 암논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의 간교한 말에 이끌려 누이 다말을 짝사랑하다 강제로 추행한후 내어 버림 (3) 다말의 친 오빠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암논을 보복 살해하고 다윗의 진노를 피해 외조부 달매에게로 도피함 (4) 다윗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했는지를 보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살전5:22).		
핵심 단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와 같은 것 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하였다’ 가 된다. 이는 앞으로 독자들이 주목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시하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문맥상 ‘그 후’ 는 다윗이 요압의 활약을 기반으로 암몬의 왕성 람바성을 정벌했던 사건 및 밋세바와의 간음으로 태어난 첫 아들의 죽음과 솔로몬 출생 이후를 뜻한다. 이때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니 약 20년 후이다. 밋세바와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고 평강의 아들 솔로몬이 출생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독자들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윗의 집안에 임할 것을 예견하게 한다. 이는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의 왕국은 흥하게 하시지만, 다윗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잘 보여준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지혜와 관용이 매듭을 푼다	날짜 : 2월 8일
찬양	나 어느 곳에 있는지 (찬송가 408장/통일 찬송가 466장)		
통독	사무엘하 14장		
본문 내용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드고아의 한 여인을 동원합니다. 요압이 보낸 드고아 여인은 다윗 앞에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는 듯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깨우칩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에 대해 말하던 여인은 다윗의 추궁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요압이 있음을 실토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지시하여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합니다. 요압은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물러가게 하고 얼굴을 대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 년이 되도록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요압 또한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요압의 발에 불을 놓아 그를 오게 하고 그를 통해 다윗과 대면합니다.		
생각해보기			
1	압살롬의 귀환 (1) 3년후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자 이를 눈치 챈 군대장관 요압이 계책을 세워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게 만듦 (2) 압살롬이 돌아왔으나 다윗은 2년동안 압살롬을 보지 않음 (3) 이에 압살롬은 요압에게 다윗과의 화해를 주선토록 강권하고 마침내 다윗 왕을 만나게 됨 (4) 부자간의 화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요압처럼 우리도 사람간에 화목케 하는 선한도구가 되자.		
핵심 단어	14:1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 한글 성경에서 ‘~에게로 향하는’ 으로 번역된 전치사 ‘알’ 은 ‘~을 대적하여’라는 의미와 ‘~위에’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번역에서 전자의 의미를 취한다 하더라도 의미의 전달이 퇴색되지 않는다. 만일 전자의 의미를 취한다면, 본문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 견해는 압살롬에 대해 다윗이 품고 있던 분노가 많이 사그라졌다는 13:39의 기록과 모순되나 요압이 보낸 드고아 여인의 비유의 취지와는 잘 들어맞게 된다. 즉 요압은 다윗이 3년이 흐른 지금에도 압살롬에 대해 적대하는 마음을 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서 드고아 여인을 사주하여 압살롬을 용서하고 맞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되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